

알피에리와 자전적 글쓰기: 등장인물을 통해 본 기억의 복구와 재구성*

최정윤**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자전적 글쓰기와 기억
3. 등장인물을 통해 본 기억의 복구와 재구성
4. 소명으로서의 문학과 언어의 극복
5.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8세기 이탈리아 문학을 대표하는 비토리오 알피에리(Vittorio Alfieri, 1749~1803)의 『자서전(Vita di Vittorio Alfieri da Asti scritta da esso)』(1790)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저자의 관계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 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3268)

**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 강사

를 분석하여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 재구성하는 기억술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알피에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자아의 모습과 자서전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알피에리는 과거의 삶을 해체해 일련의 기억과 사건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술한다. 특히 주변인물과 얽힌 일화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때 등장하는 주변인물들은 선별된 소수의 사람들로, 저자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주인공인 알피에리를 고전 시학의 계승자이자 고결한 시인의 반열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사람들이다. 결과적으로 알피에리의 자서전은 소명을 이룬 시인의 자서전인 셈이다.

주제어: 알피에리, 자서전, 기억, 등장인물, 소명

1. 들어가는 말

자서전은 작가가 자신을 대상화시켜 기록하는 장르이기에 스스로가 주체인 동시에 주인공이 되며, 작가의 정신적, 예술적, 문화적 삶에 관련되거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일부 에피소드에 초점을 맞춰 서술된다는 특징이 있다. 오늘날 자서전은 매우 대중적인 서사 장르이며, 과거에 비해 많은 작가들이 문학의 한 갈래로 채택해 사적인 일화나 대중에게 알리고픈 진실을 담아낸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으로 대표되는 초기의 자전적 저술은 대부분 저자가 겪은 영적인 삶, 종교적 행보와 관련이 깊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세속적인 자아 성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교적 성격의 자서전은 점차 줄어들고, 벤베누토 첼리니

(B. Cellini)의 자서전(La Vita)과 페트라르카(F. Petrarca)의 서간문(Le epistole)과 같은 사적인 이야기 형태로 진화했다. 자서전이 독립된 장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나간 시기는 루소가 53년간의 자신의 생애를 기술한 『고백록』이 출판된 18세기 말이다. 당시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 자서전은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서구 개인주의와 더불어 발전하였으며 삶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자서전적 소설과 같은 문학 형식으로 확장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 자서전은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1916)과 이탈로 스베보(I. Svevo)의 『제노의 의식』(1923)과 같이 실제 일화와 허구의 사건을 혼합한 내러티브 형식으로 변모했다. 자전적 문학 장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가의 인생을 특징짓는 사적 일화와 사건에 대한 정신적인 성찰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치유의 장르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알피에리의 『자서전』은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한 작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로 어린 시절의 회상, 쓰라린 사랑의 기억, 다양한 지식인 계층과의 교류,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겪은 경험을 통해 시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알피에리 자서전은 세계와 분리되어 인식되는 개인과 그 자아의식에 대한 이탈리아 대중들의 관심과 수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시대에 탄생했으며, 이탈리아 근대적 자서전의 모범으로 평가받는다.

알피에리 자서전의 중요한 특징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간 인생의 네 시기(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는 회고조로 흐르지 않고 단 한명의 인물 즉, 비극 작가로 살아간 알피에리에게 집중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전권을 쥐고 과거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과거의 ‘나’가 어떻게 현재의 ‘나’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알피

에리는 과거의 삶을 해체해 일련의 기억과 사건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술한다. 특히 주변인물과 얹힌 일화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때 등장하는 주변인물들은 선별된 소수의 사람들로서 주인공의 삶의 일부로 등장하여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들의 역할을 분석하면 알피에리 자서전의 자아 구축 방식뿐만 아니라 기억을 복구하고 재구성하는 기억술의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서전 내에 등장하는 소수의 인물들과 저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선택적 기억이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활성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알피에리가 제시하고자하는 자아의 모습과 자서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자전적 글쓰기와 기억

루소는 『고백록』 서문에서 자서전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기술한 ‘나’가 무엇보다 진실하다는 것이며, 이 진실한 기록들이 독자에게 고스란히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태도다.¹⁾ 그러나 무엇을 이야기하든 간에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기억행위로, 보존된 기억의 정확성은 언제나 장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루소의 선언을 고려할 때 기억에 바탕을 둔 자전적 서술 즉, 기억의 산물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술하는 사람의 노력이나 의도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 판단해 줄 독자의 시선이다. 저자

1) 최진성, 『나의 다큐멘터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13쪽.

가 아무리 진실이라 부르짖어도 독자가 알아봐주지 않는다면 제 가치를 발휘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기억의 온전성 여부다. “회고록이 아무리 열심히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그것은 언제나 절반만 성실할 뿐이다.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²⁾라는 앙드레 지드의 말처럼 자서전이 기초하고 있는 기억 자체는 객관성과 진실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전적으로 작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 기억의 재구성이기 때문에 화자의 주관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온전한 기억이란 없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형되고 왜곡되며 가치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집필 시점에 따라서 상황이나 주변 인물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다. 서술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욕망을 벗어나기 힘든 면도 보인다. 자서전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기록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면 무엇보다 진실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욕망이나 명예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진실이 변형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인간의 기억 저장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변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억은 과거의 데이터를 완전한 상태로 간직하고 있지 않으며 후속 경험과 지식, 감정, 저항이나 방어와 같은 심리적 기재에 의해 조건화되고 재구성된다. 실제라 믿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기억인 프로이트의 ‘은폐 기억’의 개념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억이 왜곡과 변형의 과정을 거친 은폐 기억이라고 할 때, 과거는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시점의 상황과 서술자의 욕망에 따라 (재)구성된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뿐 아니라 개인의 일기와 자서전을 비롯한 모든 서사 텍스트,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기술까지도 이

2) Gide, André, *Si le grain ne meurt*, Folio, 1972, p. 278. 재인용: 최진성, 『나의 다큐멘터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13-14쪽.

러한 인간의 기억/망각의 메커니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³⁾ 이렇듯 자서전은 과거의 자료를 선택하고 구조화함에 있어서 기억을 온전히 소환해올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충실한 요약이 아닌 창작의 산물에 가깝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알피에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서문에서 본래의 의도에 충실해서 모순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동시에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모두 말할 용기나 분별력은 없을지 몰라도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비겁함은 추호도 없다”⁴⁾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자서전의 근본적인 목표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밝힌다.

내 인생을 기록하는 주된 목표는 나를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41년간의 내 삶은 기껏해야 두세 페이지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⁵⁾

알피에리 자서전에서 보존된 기억과 잊힌 기억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억 활동에 따라 유동적이다. 과거의 일부 이미지는 선명한 색조를 띠는 반면에 일부 이미지는 중요성을 잃고 퇴색된다. 주관성을 전면에 내세운 저자는 과거의 특정한 사건을 기억해 자서전에 기록하지만 실제 발생한 사실이나 방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적인 기록 공간인 일기와 서신에 기록된 것과는 다를

3) 김현진,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독일언어문학』 제22집, 한국독일언어학회, 2003, p. 343.

4) Alfieri, Vittorio, *Vita scritta da esso*, a cura di Luigi Fassò, Asti, Casa d'Alfieri, 1951, p.2.

5) Ibid., p.303.

수 있다. 기억이 항상 이성적인 것이 아니며 문서처럼 차곡차곡 기록해놓기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자서전 내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의 진실성 문제, 즉 독자의 입장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내기보다 변형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3. 등장인물을 통해 본 기억의 복구와 재구성

어느 자서전이든 서사의 주인공은 당연히 자신의 삶을 1인칭 시점에서 서술하는 작가 자신이지만, 주인공 주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알피에리의 자서전에도 주인공 외에 가족부터 연인, 지인들까지 주변 인물들과 얽힌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의 비극 작품과 마찬가지로 자서전 속 등장인물들은 다수가 아닌 선별된 소수의 인물들로 이들에 대한 서술 또한 한정적이다. 일인칭 대명사 ‘io(나)’가 1275회 등장하고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4726회 등장⁶⁾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서사는 온전히 작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연대기적 구성을 갖춘 소위 근대적 자서전이라 불리는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면이다. 골도니와 고치, 카사노바의 회고록에서 자아는 끊임없이 스쳐지나가는 사건과 주변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다면⁷⁾, 알피에리는 항상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고 친

6) Fernández Valbuena, A. I., “Autobiografismo come romanzo dell’esistenza: il mito del poeta in Vittorio Alfieri”, in *Cuadernos de filología italiana*, N.º. Extra 1-2, 2000, p. 404.

7) Costa, Simona, *Lo specchio di narciso: autoritratto di un «Homme de*

구와 연인을 포함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중심 밖으로 밀어낸다. 이와 관련하여 알피에리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이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를 보조하고 돋보이게 할 용도일 뿐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글은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치를 들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삼가겠다.⁸⁾

1) 유년기 성장에 영향을 끼친 가족들

알피에리의 자서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족이다. 유년기에는 가족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시기의 주변 인물들은 알피에리가 문인의 길로 접어들기 전 우울한 심리 상태와 권태의 원인으로 여겨지며 부정적인 기억으로 존재한다. 그가 어렸을 때 정서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인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알피에리는 아버지를 “도덕적이고 인품이 훌륭하고 소박한 동시에 체력적으로 강인한 남자”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한 반면, 어머니에 관해서는 유쾌하지 않은 기억들을 소환하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출한다. 그러한 기억 가운데는 1756년 자살 소동 사건이 있다. 어린 알피에리는 정원의 풀을 뜯어 삼킨 적이 있었다. 아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아챈 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강압적인 태도로 그에게 자살 시도 자백을 강요하며,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근신 처벌을 내렸다. 이 부분에

lettres», Bulzoni, 1983, p. 73 참조.

8) Alfieri, Vittorio, *Vita scritta da esso*, cit., p. 18.

서 어머니의 엄격한 성격과 그로 인해 외롭게 살아가는 어린 알피에리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자서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알피에리는 어머니에게서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받지 못하고 외롭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피에몬테를 떠나기 전 토리노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일반적으로 어린 아들이 어머니에게 느끼는 감정이 전혀 들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토리노를 떠난 뒤, 나는 아스티에서 훌륭하고 존경해마지않는 어머니와 사흘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다신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예감에 눈물을 지으며 이별을 준비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에게 아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어머니와 재회하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다.⁹⁾

이 내용을 끝으로 자서전에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글쓴이는 어머니를 향해 “훌륭한 어머니”, “의협심이 강한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녀에 관한 진술은 자신의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 쓸쓸한 어린 시절을 부각시키며 냉담한 어조로 거리를 두는 느낌이다.

한편, 가족 구성원 중 알피에리가 가장 애정을 보이는 사람은 누나 줄리아로, 그녀에 관한 가장 강렬한 기억은 그녀가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며 뜻하지 않는 이별을 맞아야 했던 17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알피에리는 아스티(Asti)의 수녀원으로 떠나는 누나를 향한 애절한 감정을 그의 학문적 안내자의 역할을 했던 소중한 지인들에 대한 감정에 견주어 표출한다. 어린 알피에리가 유일하

9) Ibid., p. 316.

게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사람과 떨어져 지내면서 견뎌야 했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훗날 알피에리가 자유로운 문필 활동을 위해 고향을 떠나면서 줄리아에게 전 재산을 양도했다는 점에서도 작가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물이 그녀였음을 알 수 있다.

줄리아와 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의붓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 집에는 의붓아버지의 친자식들도 있었는데 아들은 토리노의 예수회 기숙학교로 딸은 수도원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아도 아스티의 수도원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나는 일곱 살이었고 예민한 시기였기에 그 때를 또렷히 기억한다. 나의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누나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이제와 생각하니 당시의 미어지는 감정은 사랑하는 연인과 소중한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순간의 심정과 다를 바 없었다.¹⁰⁾

청소년기에 알피에리는 베네데토 삼촌에 대해 존경심을 표출한다. 공허한 사춘기 시절 건축가인 베네데토 삼촌은 그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삼촌은 알피에리에게 극장과 미켈란젤로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해준 사람으로 교육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당시 알피에리가 의지할 데라곤 삼촌뿐이었기에 그를 자주 찾아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고전에 눈을 뜨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알피에리의 예술적 감수성이 싹트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피에리는 삼촌이 설계한 카리냐노 극장(Teatro di Carignano)에 자주 들러 홀로 공연을 감상했으며, 이때 받은 시적 영감을 토대로 1762년 아리오스토(L. Ariosto, 1474~1533)와 메타스타시오(P. Metastasio,

10) Ibid., p. 23.

1698~1782)의 시풍을 모방한 소네트를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펠레그리노 삼촌 역시 알피에리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부친을 여윈 알피에리의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토리노 왕립학교 입학을 결정한 사람이다. 그를 향한 알피에리의 애정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지극히 미온적”이고, 그를 청렴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존경받을 만하지만 “학식이 부족하고 떠버리 같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펠레그리노 삼촌이 1763년 세상을 떠나고 알피에리가 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부친의 유산으로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상태였지만 삼촌의 유산이 더해져 알피에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었다. 펠레그리노 삼촌은 알피에리가 예술가로서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는 없지만 창작 활동을 위한 ‘자유’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피에몬테 법에 따르면 14세가 되면 후견인의 속박에서 벗어나 연간 수입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부동산 양도 외에는 어떠한 법적제재도 받지 않는다[...] 열네 살의 나이에 스스로 삶의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되었고 온갖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었다.¹¹⁾

청소년기 중반까지는 알피에리의 표현대로 ‘속박의 시기’였다면 펠레그리노 삼촌의 죽음 이후에는 자유의 획득과 맞물려 작가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다. 상당한 재력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동일한 사회 계층 사람들과 다른 길, 이를테면 문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이 어느 때보다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11) Ibid., p. 68.

2) 지적 발전에 영향을 준 인물들

자서전에는 토리노 왕립학교를 관두고 국가적, 군사적 의무에서 벗어난¹²⁾ 알피에리가 비극 작가로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지적인 자극과 함께 정신적인 도움을 준 지인들이 등장한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은 1768년에 네덜란드에서 만난 포르투갈 장관 호세 바스퀘스 다 쿠냐(Josè Vasques Da Cunha)로, 그는 명민하고 고매한 성품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사랑의 열병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던 알피에리에게 지적인 안내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알피에리는 “그 고귀한 친구는 내게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노련한 솜씨로 나를 피폐한 삶에서 끌어내주었다”¹³⁾라고 말하며 그로 인해 나태한 삶에서 벗어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인 생각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음을 강조했다.

알피에리의 지적인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준 또 다른 사람으로 수도원장 톰마소 발페르가 디 칼루소(Tommaso Valperga di Caluso)가 있다. 이 인물에 대한 서술은 자서전에 언급된 지인들을 통틀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알피에리는 그를 도덕적이고 교육적인 면에서는 물론 인격적으로 보기 드물게 훌륭한 사람으로 스승이자 친구로서 이상적인 인물로 바라보고 있다. 그 덕분에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웠고 극도의 무지함과 그로 인한 수치심을 덜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수도원장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성과

12) 토리노 왕립학교는 귀족 자제들의 교육기관으로 사보이 왕가의 충성심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알피에리는 1758년 왕립학교에 입학해 1766년까지 그곳에서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고 승마와 펜싱 같은 체력 훈련을 받았다. 왕립학교를 나온 뒤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유럽 각지를 돌며 새로운 학문과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지식인들과 교류했다.

13) Ibid., p. 105.

감정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 시작(詩作)을 향한 열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회상하며 “몽테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이 특별한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았다”¹⁴⁾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낸바 있다.

아고스티노 아메데오 타나(Agostino Amedeo Tana) 백작은 알피에리가 문인의 길로 들어선 초창기부터 그의 학문적 조연자 역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극 작가로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고스티노 타나 백작뿐 아니라 그의 부친에게도 첫 번째 비극 작품의 평가와 조언을 부탁한다. 자서전의 최종본에서 두 인물은 “성스러운 수호자”로 묘사되어 있으나 초고에서는 이들에 대한 언급 없이 잔인하고 치열한 문학계에 홀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표현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했을 때 작가는 최종판에서 전형적인 영웅 소설로 비춰지도록 주변 인물들을 재평가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¹⁵⁾ 아고스티노 타나 백작이 삼파올리나(Sampaolina) 학회에 참석했을 당시 알피에리의 작품에 혹평을 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알피에리는 일기에 그에 대해 질투에 눈 먼 사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일기의 내용과는 별개로 자서전에서는 백작을 그저 박식한 사람이라 묘사하며 한 때 가졌던 부정적인 판단을 배제시킨다. 이로써 작가는 이 인물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더욱 강조한다.

14) Ibid., p. 113.

15) 알피에리 자서전의 내러티브는 주인공 알피에리를 영웅화하는 다양한 흥미로운 요소들과 얹혀 있으며 명백한 우화적 서사구조를 띤다. 즉,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난 인물이 보통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으나 고난의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향을 떠나 역경을 마주하지만 조력자를 만나 위기를 극복하고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서사적 구조를 이룬다.

16) Alfieri, Vittorio, *Giornale*, a cura di A. Di Benedetto, Palermo, Sellerio, 1994, p. 27.

한편, 자서전에서 우정에 대한 언급은 다소 미약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알피에리는 시에나에서 다양한 교우관계를 형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프란체스코 고리 간텔리니, 피에트로 고리 판닐리니, 아르두이노 타나, 마리오 비앙키, 안사노 루티, 카를로타 부오니세니 등의 여러 인물들과 우정을 쌓고 말년을 함께 보냈지만, 자서전에는 이들 중 아르두이노 타나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 작가는 연인과 헤어진 뒤 아르두이노에게 편지를 쓴다.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확고한 결심을 알리고 그 뜻으로 싹둑 자른 머리카락 뭉치를 동봉한다. 두 사람이 깊은 우정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의 내용과 달리 자서전에는 이들의 관계가 다소 축소되어 나타난다. 또한 마리오 비앙키는 알피에리와 가장 친밀한 사이로 오랫동안 서신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인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렇듯 우정과 관련된 특정 세부 사항을 생략한 이유는 우정보다 나태하고 나약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문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3) 자기 인식을 이끌어준 여성들

자서전에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인물들도 등장하는데 이들은 감성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알피에리의 연애,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나 가슴 아프고, 아슬아슬한 불륜이 섞여 있다. 하지만 자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인의 삶으로의 전향에 초점을 맞추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들이다. 1768년 6월 작가가 열아홉 살이던 시절 첫사랑을 경험한다. 그는 하인 엘리야와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고 그 곳에서 크리스티나 에메렌티아 부인을 만난다. 그녀를 “외모는 평범하지만, 순수하고 우아함이 넘치는

상냥한 숙녀”로 묘사한다. 이 둘의 관계는 말 그대로 끔찍하게 끝이 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사랑은 더욱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저자는 페넬로페 피트와의 만남을 무려 두개의 장에 걸쳐 서술한다. 그녀는 토리노 주재 영국 특사의 딸이자 에드워드 리고니어 자작의 부인이었다. 그녀와의 런던 스캔들은 서스펜스가 넘치는 로맨스 소설처럼 서술되어 있다. 어느 날 페넬로페의 남편이 외도의 증거를 모아 극장에 있던 알피에리를 찾아와 불륜을 폭로하고 대결을 신청한다. 두 남자는 1771년 그린 파크 공원에서 난투를 벌인다. 이때 알피에리는 낙마사고로 왼쪽 팔이 부러지는 지경이 이르게 되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혈투까지 감수한 알피에리는 부상보다 더욱 쓰라린 사실을 알게 된다. 이혼 위기에 처한 페넬로페는 마부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고백한다. 알피에리는 20년이 지나도 그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괴로운 심정을 밝힌바 있지만, 한편으로 그를 확고한 자기 인식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알피에리는 굴욕적인 사랑의 실패를 딛고 비극 작가로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확고한 결의를 다지게 된다. 페넬로페와의 관계를 끝낸 지 4년 후인 1775년 알피에리는 그녀를 소재로 한 풍자시 『첫 번째 이야기』(Novella prima)를 완성해 당시의 경험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기에 이른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랑은 토리노의 귀부인 가브리엘라 팔레티 디 빌라팔레토이다. 당시의 사회적 관습에 따라 알피에리는 귀부인을 보호하는 기사인 치치스베오로 몇 달간 그녀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 사랑의 열병은 스물두 살의 알피에리의 삶에 새로운 격변을 불러일으킨다. 귀부인을 수행하면서 그는 첫 번째 비극 작품인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Antonio e Cleopatra)를 완성한다. 팔레티와의 만남은 사실상 작가의 시적 욕구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러브스토리가 끝난 뒤 알피에리는 자신의 본분과 문학적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녀와의 인연을 끊은 뒤 이탈리아어로 초기작을 집필하기로 결심한다.

그녀[팔레티]와 헤어지기 며칠 전 나는 그녀가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으며 안락의자 쿠션 아래에서 1년 간 잠자고 있던 클레오파트라를 다시 꺼내고픈 마음이 들었다. 지독한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서 이윽고 클레오파트라를 다시 펼쳤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 작품을 마무리지어야 해.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다시 겪는다 해도 다가오는 봄에는 기필코 무대에 올리고 말겠어.”¹⁷⁾

본격적으로 ‘탈피에몬테(spiemontizzarsi)’를 감행하던 시기에 알피에리는 토스카나에서 알바니 부인과 인연을 맺는다. 이는 가장 의미 있는 만남으로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다. 피렌체에서 알피에리의 정신적 방황에 중지부를 찍게 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준 사람이다. 시인은 그녀와의 만남 이후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무엇보다 학문에 집중하는 시기를 보냈다. 그는 그녀와의 첫 만남을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그녀의 첫인상은 내 눈과 마음에 아주 기분 좋은 여운을 남겼다. 백옥 같이 흰 피부와 금발머리, 상냥한 검은 눈은 그녀의 미모를 한층 돋보이게 해주었다. 스물다섯 살의 그녀는 관대한 마음씨를 지녔으며 미술과 문학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¹⁸⁾

17) Alfieri, Vittorio, *Vita scritta da esso*, cit., p. 173.

18) Ibid., p. 258.

알피에리는 자서전에서 알바니 부인이 예술과 문학에 조예가 깊고 자신의 재산과 유작의 관리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지적 욕구가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알피에리는 이 여성의 외모가 아닌 지적인 면에 매력을 느꼈다고 언급한다. 그녀는 4개 국어(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에 능통했으며, 독서를 즐겨하고 음악과 그림, 문예에 조예가 깊고 언변이 뛰어나 그녀를 중심으로 문학 모임과 같은 다양한 지적 교류가 형성되었다.

여성 인물에 관해서 외모와 성격은 작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성은 아픔을 주는 대상이었지만 이 여성들 덕분에 알피에리는 자신의 문학적 소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 알피에리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일지라도 주인공을 둘러싼 인물들은 언제나 그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세 번의 격정적인 사랑을 그린 일화에서도 여성 인물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소명을 찾아가는 작가의 여정 속에서 문학적 영웅의 존재를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매개체일 뿐이다.

4) 이상화된 인물

알피에리 곁에는 항상 하인 프란체스코 엘리아가 있다. 그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넘어 알피에리의 신실한 벗이자 현명한 조언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묘사된다. 엘리아는 유럽 곳곳을 동행하며 알피에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살폈다.

작가는 자신의 인간적이고 예술적인 성장에 관해 언급 할 때 반어적인 어조로 인간 알피에리의 인식함, 강박적인 집착, 하루에 14필의 말을 사들일 만큼의 탐욕과 욕심, 옷차림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허영심, 때때로 터무니없는 화를 내는 등의 결점에 대해 솔

직히 터놓는다. 이렇게 변덕스럽고 괴팍한 저자를 항상 곁에서 보필한 사람이 하인 엘리야였다.

1766년 10월 4일 오전 나는 그토록 기다리던 여행길에 올랐다. …… 여정 내내 하인이 내 곁을 지켰다. 내가 말하는 하인은 3년 전 그 늙은 가정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나와 동행한 이 사람은 새로운 하인 프란체스코 엘리야다. 그는 20여 년간 삼촌을 모셨고 삼촌이 세상을 떠난 뒤 내 사람이 되었다. 그는 예전에 삼촌과 함께 사르데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를 두어 번 여행한 적이 있다. 그는 보기 드물게 명민한 사람으로 혼자서 네 명의 몫을 거뜰히 한다. 이제부터 그가 이 여행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는 어린애나 아둔한 노인 같이 무능한 사람들과 달리 진정한 조타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¹⁹⁾

그러나 이렇듯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자서전의 내용과는 달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여러 서신에서 엘리야는 경솔하고 배은망덕한 망나니로 서술되어 있다. 1764년부터 줄리아의 남편, 즉 매형에게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며 속이고 있던 것이다. 실제로 1785년 1월 19일 알피에리가 줄리아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 보면 자서전을 집필하던 시점에는 이미 엘리야와의 관계가 틀어진 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자서전에서는 그는 “어울리지 않게 겸손이나 떠는 사람이 아니라 배짱 있고 기백 넘치는 사람”²⁰⁾으로 묘사되며 충실한 하인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부끄럽지만 20년간 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아야겠어요. 최근 4년간 그를 알바니 백작 부인에게 보내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국 그를 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인간이 가질 수

19) Ibid., p. 74.

20) Ibid., pp. 91-92.

있는 결점이란 결점은 모두 가졌어요. 여기저기 참견하러 하고 거짓말쟁이에다 무례하고, 사기꾼 기질이 넘치고 난폭한 증상모락가예요. 그의 행동은 무분별하고 배은망덕하며 사악한 것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를 다신 보지 않기로 결정했죠. 그는 긴 여행 길에서 나를 정성껏 보필한 것에 대해 천 리라의 연금을 요구했어요. 그의 노고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당시는 마땅한 보상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²¹⁾

자서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알피에리의 관심은 용감하고 충실한 하인의 이미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웅이자 시인의 초상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서전 속에서 이 인물은 이상화되어 있다. 엘리야는 매력적인 영웅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글쓰이는 언제나 그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코스타에 따르면 “엘리야는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하지만 열정 넘치는 주인 곁을 지키는 가공의 인물과 다름없다.”²²⁾ 자서전 내에서 알피에리는 그에게 중재자로서 자신을 보좌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주인보다 스무 살 가량 많은 엘리야는 형이자 아버지였으며, 여러 곳을 여행하는 동안 시시때때로 기분이 달라지는 철없는 주인과 세상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주었다. 요컨대 알피에리의 관찰자로서의 특권을 가진 엘리야는 자서전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인은 주인의 변덕스러운 성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애정과 이해심을 드러내지만 동조하지는 않는다. 주인의 과도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자제시키는 동시에 이성과 지혜를 갓출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결과적으로 작가는 하인의 성격과 행동을 통해 주인의

21) Alfieri, Vittorio, “Lettera di Alfieri alla sorella Giulia(19 gennaio 1785)”, in *Epistolario*, a cura di Lanfranco Caretti, I, Casa d’Alfieri, 1963, pp. 215-216.

22) Costa, Simona, *Lo specchio di narciso: autoritratto di un «Homme de lettres»*, cit., p. 118.

존경받을 만한 미덕과 위엄이 자연스레 드러나도록 한다.

엘리아는 주인이 첫사랑의 열병을 앓을 때에도 그의 곁을 지켜 주었다. 그는 크리스티나와 이별 후 자살까지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알피에리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보살폈다.

나는 죽을 결심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핑계로 채혈을 위해 의사를 불러달라고 그에게 말했다. 진료를 마친 나는 잠든 척 침대 장막 뒤에 숨어 줄곧 머릿속을 맴돌던 그 일을 시도했다. 붕대를 풀고 피가 그대로 흘러내리게 두었다. 그때 현명하고 믿음직스러운 엘리아가 내 상태를 살피러 왔다가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나는 깜짝 놀랐고 동시에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 순간 후회가 밀려와 붕대가 저절로 풀렸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그는 아무 내색 없이 내 팔에 붕대를 다시 감아주었다.²³⁾

알피에리는 사라고사와 마드리드로의 여행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서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엘리아에게 할애한다. 마드리드에 도착한 알피에리는 어느 시계공과 저녁식사를 한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잠자리에 들기 전 평소와 같이 엘리아가 그의 머리를 빗질을 했는데 실수로 주인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아 뜯게 된다. 그러자 알피에리는 벌떡 일어나 촛대를 잡고 하인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세게 내려쳤고 하인은 주인의 몸에 엉겨 붙으며 반격을 시도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끝나고 알피에리는 자신의 행동이 과했음을 인정하고 엘리아에게 자신의 방문을 열어두겠다는 말을 하며 하인이 자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갖도록 해주었다.

23) Alfieri, Vittorio, *Vita scritta da esso*, cit., pp. 143-144.

그리하여 그 끔찍한 싸움이 끝이 났다. 나는 미안하면서도 부끄러웠다. 그는 나를 제압하고도 남았을 터이다. 큰 덩치만큼이나 힘이 세고 거침없는 사내였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그의 관자놀이에 생긴 상처는 깊진 않았지만 출혈이 꽤나 있었다. 나는 한 움큼도 되지 않는 머리카락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성을 잃은 나의 행동에 소름이 끼쳤다. 그가 마음을 식히는 것을 보았지만 아직 진정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잠시 후 그는 상처에 붓대를 감고 방을 정돈한 뒤 자신의 침실로 돌아갔다. 나는 화난 사람을 조심하라는 스페인 시계공의 조언을 무시하고 엘리아의 방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그에게 들리도록 큰소리로 외쳤다. 오늘 밤 복수하고 싶거든 얼마든지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후련해진다면 원 없이 하라고 말하고는 잠 자리에 들었다. 그가 내게 무슨 짓을 해도 난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나만큼이나 영웅다운 모습을 보였다. 복수는 꿈도 꾸지 않았다. 그저 상처를 감쌌던 피 범벅된 손수건 두 개를 고이 간직할 뿐이었다. 우리 피에몬테인들의 혈통과 관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을 테지.²⁴⁾

이 일화는 주인과 하인의 사회적 위계를 무색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즉, 주인과 하인의 계층의 간극이 메워지고 하인의 영웅적인 행동이 주인의 영웅적 면모와 동일시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알피에리는 하인에게 18세기 프랑스 희극의 전형적인 하인의 이미지를 입힘으로써 인간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애증의 관계인 하인의 공로와 가치를 인정한다.

저자는 자신이 비극 작가가 되는데 엘리아가 헌신적인 역할을 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전 연인 빌라팔레토에 대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던 1775년 알피에리는 한동안 오로지 문학에만 전념하기 위해 하인에게 자신의 몸을 의자에 결박하라는 명령을 한

24) Ibid., pp. 166-167.

다. 하인은 주인의 감정적인 행동을 통제하며 결과적으로 장차 시인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나는 가혹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의자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수시로 집을 뛰쳐나가 나를 가두었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였다. …… 엘리아가 나를 의자에 묶어 두었고 내게서 어리석은 충동이 사라지고 마음이 진정되면 나는 그에게 풀어달라는 신호를 했다. 이것은 우리 둘만의 은밀한 작전이었다.²⁵⁾

여러 일화를 고려할 때 엘리이는 마리보의 아를캥(Arlequin)과 같이 좋은 친구이자 믿음직스러운 조언자로서 주인을 섬기며 알피에리가 행동하는데 기준점이 되어주는 동시에 한계를 극복하는 발판이 되어 준 현명한 인물이다. 그는 알피에리가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력자로서 자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4. 소명으로서의 문학과 언어의 극복

알피에리의 자서전은 과거의 사건이나 낭만적이고 모험적인 경험을 통해 알피에리가 문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단순히 회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²⁶⁾ 작가의 경험들은 시간적 추이를 나타내는 개별적인 사실들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이 한 개인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삶의 내재적인 연관성을 밝혀낸다. 자서전에서

25) Ibid., pp. 196-197.

26) 최정윤, 「알피에리의 자서전에 나타난 기억 서술 방식과 정체성」, 『인문학연구』 제129권, 충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22, 250쪽.

이야기하는 모든 사건은 필연적인 시인의 소명을 암시한다. 데베네데티의 주장대로 “알피에리는 그의 운명 전체가 시인의 소명과 일치하기를 바랐다.”²⁷⁾ 알피에리 스스로가 ‘개종’이라는 용어를 차용함으로써 문학적 전환을 종교 개종과 같은 인생의 극적인 전환기에 비유한다. 어둡고 불안한 내면이 깨달음을 얻은 뒤 사명감을 갖고 엄격히 수행하고 헌신하는 과정과 같다고 본 것이다. 알피에리에게 시는 절대적 승배의 대상이며, 시작(時作)은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관례적으로 행했던 기술적이고 수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숭고한 존재에 대한 깨달음, 즉 인간 존재의 가치가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다.

알피에리의 자서전은 개종이라 부를 정도로 극적인 변화 후에 지적 발전과 직업적 성숙도가 향상되는 과정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유형인 비코(G. Vico, 1668~1744)나 무라토리(L. A. Muratori, 1672~1750)의 자서전과 공통점이 있지만, 문인의 길로 들어서기로 결정한 순간을 전환점으로 문학적 경력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 막을 내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알피에리 자서전의 목적은 사후에도 칭송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문인으로서의 인생 전환에 관한 절대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피에리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운명에 대한 답을 당대에 만연한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개념에서 찾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느꼈다. 그가 이탈리아의 위대한 비극 작가로서 존재적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 계기는 독서와 글쓰기의 발견이다. 알피에리가 청년기를 보낸 왕립사관학교의 교육 수준은 낙후되었으며, 그 당시 그의 이탈리아어 수준 또한 상당히 미흡한 상태였다. 알피에리는 1778

27) Debenedetti, Giacomo, *Vocazione di Vittorio Alfieri*, Editori Riuniti, Roma 1977, p. 27.

년 사르데냐 왕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제대 후 누나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토스카나로 떠난다. 고전작품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무엇보다 서투른 이탈리아어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문학어의 중심지인 피렌체에서 그는 토스카나어로 말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다. 알피에리는 자서전에 토스카나어를 익히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학습 방법과 독서 목록 등을 밝히며 상세히 설명한다. 자서전에는 그의 부족한 언어 수준과 학식에 대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자서전이 문학적 전환의 순간인 동시에 상실한 언어의 회복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는 아리오스토와 메타스타시오 등의 이탈리아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폭넓게 읽으며 이탈리아어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문적 식견을 넓혀나갔다. 이로써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초기작들은 먼저 프랑스어로 원고를 작성한 뒤 이탈리아어로 옮기는 방식으로 집필되었다면, 『안티고네』(1783) 이후로는 초고부터 전 과정을 이탈리아어로 집필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프랑스어가 이탈리아어로 대체된 순간은 과거의 자아를 새로운 자아로 대체하는 최종적인 변혁인 셈이다.

알피에리의 문학적 전환은 역설적이게도 자연으로의 회귀를 뜻한다. 자서전에서 이 전환의 과정은 자연스럽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아주 명백한 것인 동시에 새로운 위상을 얻기 위한 내적 투쟁으로 묘사되어 있다. “자서전의 중심 주제인 ‘문인으로서의 자기인식’은 ‘자연 언어’로서의 이탈리아어를 되찾은 사실과 동일시된다.”²⁸⁾ 알피에리 자서전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인생과 문학이 완전한 융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28) Ferrari, Chiara, “The Itinerant vergogna in Alfieri's Vita, MLN”, 125-1, *Italian Issue* (January 2010),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 157.

5. 나가는 말

낭만주의 감성의 선구자로 꼽히는 알피에리는 18세기 유럽 문학사에서 남다른 행보를 보였다. 레오파르디가 그를 ‘동시대의 문인들과 차별화되는 진정한 작가’라고 정의할 만큼 당대 문인들의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18세기 최고의 자서전이라 평가되는 알피에리의 『인생』은 문학어에 익숙하지 않은 언어적 한계와 피에 몬테 출신으로 태생적, 관습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인으로서의 소명을 노래한 자전적 이야기다.

이념, 장르, 관습적 제약을 넘어 알피에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이끈 본능은 무엇이었을까. 알피에리가 자서전 집필에 착수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가 인생을 기록하는 것은 생전에 자신의 작품을 방어하거나 당대 지식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게 아니다. 또한 자기 검열이나 18세기 자서전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잔노네의 자서전과 같이 교육적 목적도 없으며, 다 폰테의 경우처럼 당시 소설을 차용한 자서전 유형에 익숙해진 대중의 호의를 얻고자 함도 아니었다. “알피에리의 자서전은 작가 인생의 전반부를 특징짓는 불안정, 불완전, 분산의 과정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²⁹⁾

알피에리의 자서전의 중심에는 저자 자신이 있고 일련의 기준에 따라 선별된 소수의 인물들이 그 중심을 지지해준다. 그렇다고 자서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애정이 담긴 인물들은 아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기억으로 표출되든 긍정적인 기억으로 표출되든 상

29) La Russa, Giuseppe, L'autobiografia di Alfieri e la “vocazione al desiderio”, 2018.03.14, <https://www.culturelite.com/categorie/scritture/l-autobiografia-di-alfieri-e-la-vocazione-al-desiderio.html>, Redazione Culturelite, 2023.08.09.

관없이 작가의 우울하고 절제가 부족하고 불같은 성미, 고집 센 그 중에서도 명예에 집착하는 성격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작가가 문학적 이상향을 펼치는데 어떤 식으로든 기여한 사람들이다. 알피에리가 문학적 결실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인물들은 엑스트라처럼 스쳐지나가거나 기억에서 지워진다.

알피에리의 비극 작품의 영웅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극한의 상황에서 점차 자신의 소명을 깨달아가듯이 알피에리도 자신이 창작한 비극의 영웅들과 같은 운명에 도달한다. 그는 비극 작가로서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의 신화를 써내려간다. 현실의 한계에 부딪힌 영웅들의 마지막 모습에 인간의 한계를 마주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다. 지치고 노쇠한 모습 뒤에 자부심 넘치고 영예로운 초상화를 남긴다. 자서전의 마지막 부분에 묘사된 주인공은 평생을 바쳐 영광스러운 업적을 이룬 예술가라 할 수 있다. 결국 알피에리의 자서전은 소명을 이룬 시인의 자서전인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서전 내 인물들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알피에리의 기억술의 특징 및 자서전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자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명한 기준에 따라 선별된 등장인물들은 주인공인 알피에리 자신을 고전 시학의 계승자이자 고결한 시인의 반열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사람들이다. 결과적으로 텔리니의 주장처럼 자서전에서 알피에리는 자신의 자전적 자료와 기억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내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영웅의 왕관을 열망하는 인물”³⁰⁾로 표출하기 위해 자전적, 역사적 사실을 정제하고 새로이 해석할 뿐이다.

30) Tellini, Gino, “Storia e romanzo dell'io nella bizzarra mistura della Vita di Alfieri”, in *Alfieri in Toscana*, I, L.S. Olschki, 2002, p. 213.

참고문헌

1. 논문

- 김현진,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독일언어문학』 제22집, 한국독일언어학회, 2003, pp. 321-346.
- 최정윤, 「알피에리의 자서전에 나타난 기억 서술 방식과 정체성」, 『인문학연구』 제129권, 충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22, pp. 235-256.
- Fernández V, A. I., “Autobiografismo come romanzo dell’esistenza: il mito del poeta in Vittorio Alfieri”, in *Cuadernos de filología italiana*, Extra 1-2, 2000, pp. 403-417.
- Ferrari, C., “The Itinerant vergogna in Alfieri’s Vita, MLN”, 125-1, *Italian Issue (January 2010)*,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153-168.
- Tellini, G., “Storia e romanzo dell’io nella bizzarra mistura della Vita di Alfieri”, in *Alfieri in Toscana*, I, L.S. Olschki, 2002, pp. 213-219.

2. 단행본

- 최진성, 『나의 다큐멘터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Alfieri, V., *Vita scritta da esso*, a cura di Luigi Fassò, Asti, Casa d’Alfieri, 1951.
- Alfieri, V., *Epistolario*, a cura di Lanfranco Caretti, 1, Casa d’Alfieri, 1963.
- Alfieri, V., *Mirandomi in appannato specchio [Giornale]*, a cura di A. Di Benedetto, Palermo, Sellerio, 1994.
- Debenedetti, G., *Vocazione di Vittorio Alfieri*, Editori Riuniti, Roma 1977.
- Insero, S., *Vittorio Alfieri and the autobiographical genre: Vita between real and imagination*, Université de Lorraine, 2014.
- Costa, S., *Lo specchio di narciso: autoritratto di un «Homme de lettres»*, Bulzoni, 1983.

3. 기타자료

La Russa, G., L'autobiografia di Alfieri e la "vocazione al desiderio",
2018.03.14, <https://www.culturelite.com/categorie/scritture/l-autobiografia-di-alfieri-e-la-vocazione-al-desiderio.html>,
Redazione Culturelite, 2023.08.09.

(투고일: 2023. 10. 30 심사완료일: 2023. 12. 16 게재확정일: 2023. 12. 18)

최정윤

소 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 (글로벌캠퍼스)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전자우편: unipisa.choi@gmail.com

[Abstract]

Alfieri and Autobiographical Writing: Recovery and Reconstruction of Memories through Characters

Choi, Jung-Yu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 and the characters in Vittorio Alfieri's autobiography, *Vita di Vittorio Alfieri da Asti scritta da esso*, and examine by what criteria the author's selective memory was activated. This paper ultimately aims to find out true essence of self that Alfieri intends to present and the genuine meaning of his autobiography.

Alfieri deconstructs his past life, describing a series of memories and events selectively. At the center of the autobiography is the author himself, supported by a select few individuals chosen. The peripheral figures that emerge play an essential role in explaining the author's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 serving as a necessary element. These characters that appear in the autobiography are individuals who, in their own way, contribute to elevating Alfieri, as a successor to classical poetics and a noble poet.

In the autobiography, Alfieri does not distort or fabricate his autobiographical data and memories. He simply refines and reinterprets autobiographical and historical facts to portray his own life as a figure aspiring to the literary virtuoso.

Key words : Alfieri, autobiography, memory, character, vocation